

작품 : 서영호 도미니코 (서면성당·부산가톨릭미술인회)

온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7,13~14

화답송 시편 93(92), 1ㄱ~1.1ㄷ~2.5 (© 1ㄱ)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후렴) 주 님 은 임 금 님, 위 엄 을 입 으 셧 네.

1.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
2. 우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좌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

3.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 나이다. 주님, 길이길이 그러하리이다. ◎

제2독서 요한 묵시록 1,5ㄱ~8

복음 환호송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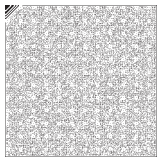
복음 요한 18,33ㄴ~37

영성체송 시편 29(28), 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오늘 복음에 해당하는 수난기에 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장면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빌라도와 예수님을 대조시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공생활 동안 당신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공생활의 막바지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 주님을 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요한 18.37) 식민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다스리심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당

신의 충실함을 드러내는 것 이상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성실한 증인”인 것입니다. 이같은 아버지께 대한 충실함으로써 그분께서는 우리가 제 능력으로는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모자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빌라도와 대조되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 표현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평화, 사랑의 왕이십니다. 세속의 절대 권력으로 심문하는 빌라도와 체포된 상태로 심문을 당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왕권은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 두 왕권의 결정적 차이는 ‘진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빌라도의 모습처럼 무력과 권력이 아닌 바로 ‘진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서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요한 18.37) 우리들도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 들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속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 들을 때, 우리는 참으로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으시고 섬기려 세상에 오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진리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조 성 문

마르티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새벽에 일어날 일이 있어서
알람을 맞춰 두었어요.
몇 번 깨어나긴 했지만
알람을 믿고
마음을 내려놓았지요.

참... 그렇게,
기계는 잘도 믿으면서!



글. 장정에 마리아고레띠 시인(만덕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1.26(월)~27(화)
조성문 신부(신학대학 교수)
11.28(수)~12.1(토)
이종헌 신부(광안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우지민 유스티나

11.28(수) 오늘의 가톨릭 뉴스 - 태아생
명보호를 위한 마리아수녀회 '자선대바자회'

출연 : 임영천 헬레나 리포터

11.28(수) 본당 리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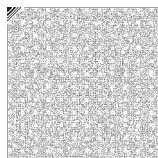
출연 : 장귀선 마르첼라(남밀양성당)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11.30(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

우린 찬양사도 출연 : 김솔이 글라라



2년 전 함흥교구의 신학생 모집 공고를 본 적이 있다. 당시 이 공고는 한국천주교회가 북한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최근 교황님의 방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에 진짜 가톨릭 신자가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선친이 피란민이었던 관계로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다.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론은 북한에 진짜 가톨릭 신자들이 있고, 형편 되는 대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차관 『3층 서기실의 암호』에 소개된 홍 데레사의 사연을 보면 우리가 ‘침묵의 북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다. 홍 데레사는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8년 4월 예수 부활 대축일에 비티칸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알현하고 축복을 받은 북한의 신자다. 그

자매는 “진짜 신자를 데려오라”는 교황청의 요구에 북한 당국이 예전 교적을 뒤져 6·25전까지 독신했던 신자를 찾아낸 것이다. 처음엔 부인하던 홍 데레사는 결국 용기를 내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느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태 공사는 “교황청 사람들은 할머니 눈빛만 보고도 진짜 신자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중앙일보 2018년 10월 29일 자 30면 참조) 당시 김일성 주석은 소련이 해체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외교적 고립 위기에 처하자 교황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홍 데레사를 찾아냈다고 태 공사는 책에서 밝혔다.

북한 지역은 해방 직후만 해도 3개 교구, 30여 성당에 5만5000여의 신자들이 있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했다. 평양교구와 함흥교구, 그리고 원산 근처 베네딕도회 덕원수도원이 관할하던 덕원교구 등이다. 덕원수도원

은 독일과 한국인 성직자와 수도자, 잡역부 등 100여 명이 살았고, 빵과 포도주 공장, 인쇄공장, 신학교를 갖춘 북한에서 가장 큰 수도원이었다.

인터넷에서 평양교구를 검색해보면 공산화 전까지 활발했던 신자들의 신앙생활 모습도 볼 수 있다. 성당을 가득 메운 신의주 성당 장례식 모습을 보면 숙연해 진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창립사진(1936년)에는 흰 저고리와 검정색 치마를 입은 한국인 수도 서원자들의 모습에서 성소도 넘쳤음을 알 수 있다.

교황님의 방북 여부에 관련 없이 우리는 북한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미리 양성해 둔 함흥교구 사제들이 언젠가는 북한 성당의 주임 신부로 부임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 김 상 진 요한

언론인 daedan57@hanmail.net

환경과 생명 도시를 위한 농촌의 선택

도시는 그 문명을 영위할 최소한의 조건, 곧 생존 조건을 모두 농촌에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낙동강의 물도 심심산골 저 먼 시골에서 발원해 먼 길을 돌고 돌아 이곳 경상도까지 흘러 우리의 가정에까지 와닿습니다. 농촌이 만약 도시와 같다면 지금의 미세먼지는 수십 배에 달하는 위험으로 다가와 도시문명조차 파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단순히 물과 공기뿐이겠습니까? 생명을 영위할 먹을거리 일체도 결국 농촌이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조달할 방법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이 살만한 곳이 된다는 건, 그래서 도시가 그나마 쾌적한 삶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농촌이 사라지면 도시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농촌의 현실을 되돌아볼 필요에서 지금 농민들이 밥 한 공기 분량인 100g의 쌀값을 300

원으로 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도시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농촌의 실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도시도 결국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위기징후를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농업만으로 살아갈 방도를 찾지 못해 농사짓는 것 외 다른 방도로 수입을 마련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사가 가지는 생태적 가치에 눈을 뜨고 용기를 내어 농촌행을 감행한 사람들이 그 의지를 꺾게 된다면 어찌될까요? 모두가 가는 길을 접고 거꾸로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기획하는 귀농인이 시골을 포기한다면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시로 물밀듯이 밀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밥 한 공기당 농민에게 300원을 돌려드리는 것은 도시문명을 위한 투자입니다. 도시의 본당이 커져만 가도 신앙의 뿌리인 시골 공소의 가치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도시에서 농촌의 삶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12월의
도서, 영화

성탄의 빛 - 대림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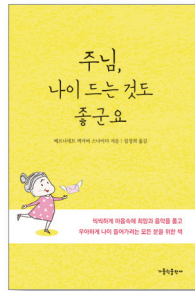
■ 안셀름 그륀 지음 ■ 임정희 옮김
■ 바오로딸 ■ 6,000원



안셀름 그륀 신부는 이 책을 통해 대림과 성탄 시기를 치유의 시간으로,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면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대림의 원래 의미가 고요와 기다림, 깨어있는 시간임을 자각하고 대림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새로이 경험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나이드는 것도 좋군요

■ 베르나데트 맥카버 스나이더 지음 ■ 임정희 옮김
■ 가톨릭출판사 ■ 10,000원



이 책은 노년의 시기를 보내는 저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듯 쓴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나약해지기 쉽지만, 일상의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모든 일상과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봉헌하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해와 치유

■ 송차선 지음 ■ 본도출판사 ■ 9,000원



이 책에서 저자는 주변의 누군가가 못마땅하고 늘상 인간 관계가 꼬이는 것도 실은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본연의 자기 자신을 만나 그동안 스스로에게 입힌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늑은 자전거

괴팍하고 고약한 성격 탓에 반겨주는 이 없이 술과 낚은 자전거를 친구 삼아 살아가던 시골 장돌뱅이 '강만(최종원)'. 어느 날, 그의 앞에 수 년 전 집을 나간 아들 '길재'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손자 '풍도(박민상)'가 나타난다. 하나뿐인 핏줄임이 분명함에도 강만은 제 핏줄이 아니라며 풍도를 강하게 거부한다. 당돌하기를 넘



어서 뻔뻔하기까지 한 풍도는 울고불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결국 강만의 곁에 남는데 성공하는데...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좌충우돌 사고뭉치 두 남자! 과연, 강만과 풍도는 평범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 무료영화상영회**

12/17(월) 19:00 가톨릭센터 소극장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누구나 저마다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습니다. 말뿐인 사랑 말고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랑을 바랍니다. 이것을 친밀함에 대한 갈증이라고 불러봅시다. 이런 살가운 친밀감은 아주 어린 적 부모 애착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 가면서 양육자의 품을 벗어나면 우리에게 근원적인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근원적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의 은혜로 하느님과 자녀-부모 친밀함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느님과 속마음을 털어놓고 살아가는 친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하느님을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함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느님과 우리는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부모-자녀 애착관계와 비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신체접촉을 자주한다.
2. 아이의 욕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주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다.
3.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민하고 대화한다.
4.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5. 규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가르친다.
6. 일관된 양육 태도를 갖는다.

하느님과 친밀함을 여기에 빗대봅시다.

1. 영성체를 자주 모신다. 오감으로 하느님 현존을 자주 느낀다.
2. 나의 바람과 소망을 자주 아뢴다. 화살기도를 자주 한다.
3. 일상의 시련을 항상 하느님과 나눈다. 양심 성찰을 자주 한다.
4. 하느님께 나의 자유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청한다.
5. 십계명을 자주 묵상한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주 청한다.
6.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 하느님의 섭리하심에 감사드린다.

■ 임성근 신부(우동성당 부주임) pantaleon@naver.com

연산성당, 레지오 마리에 50년 근속상 시상

연산성당(주임 : 심순보 신부, 회장 : 이춘도 안토니오) 신자 이월순 카타리나 씨가 레지오 마리에 활동을 50년 동안 근속하여, 지난 11월 18일(일) 교중 미사 중에 5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이월순 씨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활동하다 보니 50년의 세월이 지났다.” 며 “50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월순 씨는 1953년 8월 8일 세례를 받은 후, 초량성당 선지자의 모후 Pr.을 시작으로 양정성당을 거쳐, 현재 연산성당 모든이의 어머니 Pr.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9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 신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 자연 정화 활동

지난 11월 10일(토) 금정산 일대에서 본당 사회복지분과 위원 100여 명은 자연 정화 활동을 펼쳤다. 위원들은 3개조(성지곡, 범어사, 화명동)로 출발하여 금정산성 동문까지로 나뉘어, 지역 주민들이 오르는 등산로 일대와 골짜기를 집중적으로 청소했다.

사회사목국(국장 : 김영환 신부) 주관



11월 8일(목) 부산가정성당, 54명 수료 / 가정사목국(국장 : 송현 신부) 주관

부산 선택 주말, 제88차

- 미혼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 오는 12월 9일 30주년 기념행사 열어...

지난 11월 16일(금)~18일(일)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부산 선택 주말 제88차(차수지도 : 박종민 신부, 대표 : 이정기 루카)가 있었다. 선택 주말은 40세 이하 미혼 젊은이들이 모여, 자신들의 삶과 연관된 여러 가지 주제별 나눔을 통해 자신을 알고, 하느님을 알고 체험하는 2박 3일 프로그램이다.

한편, 부산 선택 도입 3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9일(일) 푸른나무교육관에서

‘알(고) 사(랑)하고 봉(사)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3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선택을 수강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는 주제별 나눔, 토크 콘서트,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감사미사 봉헌, 식사 나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3일(토)
주임 : 전동기 신부, 회장 : 김창곤 시몬



10월 28일(일)
주임 : 이차룡 신부, 회장 : 한기수 빅토리오

대연성당, 가두선교 실시



10월 27일(토) 평화공원 / 주임 : 김대아 신부, 회장 : 임준우 토마스아퀴나스

양정성당, 믿음 증진을 위한 피정



11월 10일(토)~11일(일) 명상의집
본당 전여성 단체 참가
주임 : 임석수 신부, 회장 : 정성탁 미카엘

지역민들을 위한 중독예방 교육



11월 6일(화) 베리타스센터 /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 박종주 신부) 주관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 월미사(울산)

· 11.30(금) 13:30 목주기도, 14:00 미사
· 월평성당 / 문의: 629-8760(성소국)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피정(부산, 울산)

· 12.7(금) 10:00~16:30 · 교구청 5층 강당
회비: 1만원(입금: 부산 041-01-027178-1 천주교부산교구) / 준비물: 목주, 미사도구
신청: 11.30(금)까지 / 대상: 관심 있는 모든 이
문의: 629-8760(성소국)

전산홍보국 직원(홈페이지 담당) 구함

모집분야: 홈페이지 담당(웹디자인, 웹마스터, 콘텐츠 개발) 1명 / 제출서류: 이력서, 본당 주임 신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접수: hongbo@catb.kr
문의: 629-8752(전산홍보국)

망미성당 사무장 구함

자격: PC(엑셀, 워드) 활용능숙자, 1종운전면허 소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제출: 11.28(일)까지) / 문의: 755-4501

서동성당 사무장 구함

자격: 회계, PC능숙, 1종면허 / 문의: 525-3744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추천서

연양성당 관리원 구함

서류: 이력서, 주민등록,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 자격: PC가능자, 1종보통면허
문의: (052)262-5312

온천성당 관리장 구함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기소개서, 사제추천서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 문의: 552-0355

기관·제 단체·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11.26(월) 19:30 · 아음성당 / 대상: 누구나
주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문의: 465-9508(무로강의와 미사)

노동사목 바자율미사(후원미사)

· 11.30(금) 19:00 / 문의: 441-6403
· 노동사목센터(사상성당 옆)

성서사도직 성서주간 말씀잔치

[부산] 11.26(월) 09:40~16:30 / 19:00~22:00
(10:00 미사 주례: 손삼석 주교)
· 주교와 남천성당
참가비: 초대 (점심도시락 각자 지참)
주제: 성경, 이야기로 읽기
강사: 연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
문의: 465-8162, 467-0761(성서교육원)
[울산] 11.26(월) 09:30~15:30 복산성당
(14:45 미사 주례: 권지호 신부)
· 복산성당 / 참가비: 초대 (점심도시락 각자 지참)
주제: 인간이 무엇인가에... (시편 8편)
강사: 홍경완 신부(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학장)
문의: 010-2082-0627(울산성서)

Arca 청년성서모임 찬양의 밤

· 12.8(토) 18:00 · 가톨릭센터 소극장
문의: 469-0761, cafe.daum.net/psiblefamily

부산 선택주말 30주년 행사(알.사.봉)

· 12.9(일) 13:30 · 푸른나무 교육관
대상: 선택주말을 수강한 모든 사람
접수: blog.naver.com/busanchoice
문의: 010-4418-0831(이두한)

정하성바오로영성관 대림절 피정

[무로하루피정] 12.3(월), 10(월), 18(화) 10:00~16:00
[2박3일피정] 12.21(금) 15:00~23(일) 중식 후
회비: 10만원 / 문의: (055)383-3101

군종후원회 성탄 위문품 발송 군인 등록

내용: 본당, 성명(세례명), 부대주소, 제대예정일, 부모연락처 / 마감: 12.5(수), 일반사병에 한함
문의: 751-3610, (052)274-3608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사무실 6층 (14평, 15평, 20평, 30평, 51평)
문의: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462-0334
(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부산가톨릭합창단 제40회 정기연주회

생상 MESSE DE REQUIEM OP. 54
· 11.25(일) 19:30 · 부산문화회관대극장
지휘: 이성훈, 피아노: 이민아, 오르간: 이효진
전석 1만원 / 문의: 010-8509-0046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청소년 및 젊은이 기도회
· 11.25(일) 13:30 전포성당(청소년)
· 11.26(월) 19:30 전포성당
· 11.28(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후원회 (양형영성체, 도유와 안수)
· 11.26(월) 11:00~15:10 / 버스 운행합니다
-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54일(9일)기도
· 11.28(수) 11:00~16:00 / 버스 운행합니다
강사: 마진우 신부(대구대교구)
- 금요철야기도회(찬미의 밤)
· 11.30(금) 23:00~12.1(토) 04:00
- 본당·교구 2차 봉사자 1일 피정
· 12.2(일) 10:00~16:00
강사: 안창호 신부(예수성심전교수도회)
- 100단 목주기도회 (도유와 안수)
· 12.10(월) 11:00~16:00 / 중식 제공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 11.26(월) 13:30 ·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644-1729, 0272

바오로아람터 후원회 미사

· 11.26(월) 10:30 · 바오로아람터
문의: 514-6988

아뉴스데이합창단 성음악 미사 및 단원모집

· 11.27(화) 19:30 · 양정성당
지도신부: 임석수 신부 / 지휘: 최금화
문의: 010-3077-3217(단장 황광호)

부산 미바회 후원회 미사

· 11.30(금) 10:00 / 세계조선교회차량지원
· 문현성당 / 문의: 010-9312-4228(회장)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연합젤기도

· 12.4(화) 13:00~15:00 · 복산성당 소성전
문의: 010-2428-5785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463-7866

상담: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부산교구 청년사목위원회

띠깅

▶12월호 바로보기

혼인미사 예식 및 예약 안내

금, 토, 일, 공휴일: 11시, 13시, 15시, 17시

문의 및 예약: 051.441.3500 (수~일)

* 2018년 성전봉헌기념 특가 예약 중 *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본당순례 인증샷 이벤트

본당 순례 중인 성당에서 인증샷을 찍고,
교구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카카오톡에서 '본당순례 검색')에 올려주
시면 매월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2019 희망의 해 문화예술단체 교류전 [달달]

희망을 담다

11/29(목)~12/7(금)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빛·선·색 만남의 밤(개전식)
11.29(목) 18:00

목주단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아) 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 · 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패들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주)부모사랑라이프 2017년 고객만족도 1위 회사 크루즈여행상품, 상조(장례)상품 장례도우미 모집, 영업사원 모집 주부환영, 여성환영, 초보환영, 투잡가능 한혜영(요셉) 010-7430-3030	수려안의원 성형외과 · 피부과 정 욱 731-6885 (바오로) 장산역 화인크리닉센터 6층 (10번출구)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리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험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한서름,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임성영, 광성욱 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	○ 등금신청에서 게어까지 ○ 가족돌봄의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 국비지원(85%~100%)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 병 덕 (사도요한) 010-7448-7858	SINCE 1965 송월타월 부산진대리점 (부산진시장, 우리은행 옆) T. (대) 632-5690 010-4807-5690 양홍식(토마스) 유명애(루시아)	건설현장의 꽃 조은 이동타워 크레인 독일 LIEBHERR MK80.88.100.110 등 MK80-마스타30M 짚42M엔드 1.7톤작업 MK100-마스타35M 짚52M엔드 1.6톤작업 MK110-마스타35M 짚52M엔드 1.8톤작업 장비임대, 현장답사(상담환영) 1833-6368, 010-3831-2403 심 현 진 (프란치스코)	삼진커텐 수입커텐, 완제품커텐, 우드브라이트, 콤비브라이트 이영복(요셉) · 김미연(마리아) 010-8546-2453 부산진시장 1층 11호문 앞

새예루살렘 향심기도 하루피정

· 11.25(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강사: 왕영수 신부 / 참여비: 1만원(중식 포함)
문의: (052)239-1249, 010-5488-1239

성바로수도회 협력자모임

· 11.26(월) 10:30 · 가톨릭센터 강의실 302호 사랑방
문의: 010-3334-8300(한기철 신부)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11.27(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구속주회 신부 / 문의: 010-7132-6379

이태석신부 참사랑실천사업회 후원회 미사

· 12.1(토) 10:00 · 송도성당
문의: 241-1601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어린이 목주기도의 날

· 12.1(토) 13:00~16:00 · 마리아피정센터
대상: 7살~10살 어린이(가족 동반)
내용: 파티마 영화, 어린이절기도, 미사
문의: 010-4940-4819(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첫모임: 12.10(월) 09:30 마리아피정센터
대상: 봉헌생활을 원하는 58세 이하 신자
준비물: 교적,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사진
문의: 010-4622-4819(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분도명상의집 피정의집 직원 구함

주거 가능 / 서류: 이력서(사진 첨부)
문의: 582-4573, 010-6650-4574
E-Mail: bundobusan@naver.com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성모유치원 교사 모집

대상: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
모집: 12.22(토) 까지
문의: +62-811-1080-543(카톡 연결 바람)

평화계곡피정의집 향심기도 피정

· 12.7(금)~9(일) · 평화계곡피정의집(소울스테이)
피정비: 14만원 / 문의: 010-3422-7587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 접수

- ▶ 게재 기간 2019년 1, 2, 3월(3개월)
- ▶ 접수 12월 1일(토)부터 선착순
- ▶ 이메일(jubo@catb.kr) 혹은 팩스(629-8756)
- ▶ 금액 1회 6만원(기본 3회 18만원)
- ▶ 서류 교적사본(본인) 혹은 본당신부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 신청서
- ▶ 신청서 교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문의 629-8752

마리아유치원 정교사, 방과후교사 모집

정교사자격소지자(신자 및 3년이상 경력교사 우대)
서류: 이력서(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 srmj445@hanmail.net
문의: 253-4885, 010-9633-1335(서대신성당)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1.7(월)~19(토) · 스페인, 서유럽
(파티마, 루르드, 파리, 반느) / 395만원
부산 출발 / 문의: 010-3837-6434

지리산피아골피정집 특별피정

-대림절 영성 피정
· 12.1(토)~2(일) / 12.5(수)~6(목)
-예비신자 및 새신자 영성피정
· 12.8(토) 16:00~9(일) 13:00 / 대상: 본당 예비신자교리반, 개인(예비신자, 영세 3년 미만 신자)
-마음 돌봄 영성피정
· 12.14(금)~16(일) (영성, 심리상담 가능)
동반: 노은주 수녀, 허찬 신부
문의: (061) 782-5004, www.piagol-732.net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성경통독피정

· 12.1(토)~9(일) / 12.14(금)~22(토)
·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 회비: 48만원
문의: 010-3340-0201, 010-4993-4394

꽃동네 대림침묵 피정

· 12.14(금)~16(일), 개인 독방 피정
·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피정의집 / 피정비: 12만원
지도: 꽃동네 수도사제, 특별강사: 오웅진 신부
문의: (043)879-8500, 010-8880-8286

제39차 효소단식, 침묵, 복음서 통독피정

· 12.27(목) 14:00~31(월) 13:00
· 정하상교육회관 / 회비: 38만원
문의: (044)863-5690~2, 010-8848-5690

연화리피정의집 종교등부 <1318 말씀사랑피정>

1차: 1.5(토)~6(일), 2차: 1.8(화)~9(수)
· 연화리 피정의집 / 문의: (054)973-4835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12.2(일) 14:00	부산 분원	010-6271-4110
사랑의성모수녀회	수시상담	부산본원 및 원하는 장소	010-9585-7074
한국외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2730-8691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국제교육원 겨울학기 학생 모집
[모집] 12.10(월)까지
[수업] 주 5일(월~금) 4시간/일
[대상]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등
문의: 510-0864, dengnx@cup.ac.kr
입학처: 051-510-0701-4 / www.ipsi.cup.ac.kr

가톨릭선원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

가톨릭선원 문화공연 아름다운세상 75

카베라타합창단과 함께하는 대림·성탄맞이 성모님 저녁기도
일시: 11/26(월) 19:30
장소: 삼산성당 성전
지휘: 권영옥
포지티브 오르간: 김현애
18:30~ 프로그램 이해를 돕기 위한 연주 전 해설
무료입장 / 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준재활요양병원 재활중점/노인요양/외래진료 (통증치료, 신경·정형외과)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372(안락동) 상담, 문의 525-7711 병원장, 최준식(안도노오) 치매나 노환으로 아픈 부모님께 더욱 직접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립니다 (주)라파엘안노인복지센터 시설장, 양재순(안나) 010-5923-1314 장기요양 1-5등급 받으신 분들은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아직 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해상, 물류, 보험, 기업법무, 영문계약, 건설 부동산, 각종 민, 형사 및 가사 변호사 직접상담 법무법인 인화국제 변호사, 이정민(베로니카) 503-0037, fax 503-8998 Email: lawyer.jmlee@gmail.com 부산 연제구 법원앞로 15번길 6 은하빌딩 2층 동래 참사랑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553-0050 추후송(야고보) 광안: 751-1515 김명희(야네스)	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 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 미래고속관광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행사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대표, 우종한(리차드) 055-333-6300, 010-3720-0303	잇몸치료/보철틀니/임플란트 박진철치과의원 원장, 박진철(토마스) 552-2811 동래시장 횡단보도 앞 2층 요양전문병원 달맞이요양병원 노인성 치매 중풍 말기암 호스피스24시간 간병 상담: 010-3845-3410 이진매 (토마스이퀴라스) 744-5275, FAX 744-5278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 나길 30	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 류마티스내과,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의학박사: 박인호(루카), 한정문 소화기내과: 최평락, 유원희, 남화성 류마티스내과: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겸직: 박정미 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 SM수맥흡침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 신문광고 중 주보 지참 교우 우대 1588-5335
--	--	--	--	---